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1호 【루게 제22993호】 주제99 (2010)년 2월 10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온 나라 대경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폭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련합기업을 또다시 찾으시고 폭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시었다.

내각총리 김일성동지, 조선로동당 함경남도위원회 책임비서 태종수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기업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현대적인 대화학기지로 일떠선 2.8비날론련합기업을에서는 지금 주체적화학공업의 위력을 떨치며 각종 화학제품들과 함께 질 좋은 비날론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총성의 구슬땀을 바쳐 마련한 자랑찬 창조물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게 된 기업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대화학공장을 무려 5년이나 찾으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끄시어 최신키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주신 어버이장군님께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며 드넓은 수직방사직장에 짙 들어찬 비날론설비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비날론머섬유하조장에 더미로 쌓인 비날론솜을 비롯한 갖가지 비날론제품들을 보시었다.



업소의 로동계급은 형언할수 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일편단심 당을 따라 백절불굴의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사수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력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 귀중한 열매를 안아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위대한 승리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그 어떤 악랄한 고립압박책동도 혁명의 불길속에서 백배, 천배로 역세어진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인민을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만천하에 파시한 력사의 진리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신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쟁생의 정신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충만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추동력이며 근본비결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견인불발의 의지력으로 숨죽은 공장을 되살려냈을뿐아니라 자재의 힘과 기술로 최신키화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

김정일동지께서는 깃털마냥 부드럽고 포근한 새하얀 비날론솜을 쥐시고 크나큰 격정속에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며 비날론솜은 목화솜이나 양털에 못지 않는 훌륭한 방직원료라고 하시면서 주체솜이 짱짱 생산되고있는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인민에게 질 좋은 비날론옷감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였다고 뜻내 기뻐하시면서 비날론 대량생산의 시작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온 나라의 대경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영웅적로동

계급이 가장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를 모르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만년시련을 파감히 뚫고 헤쳐온 결과 드디어 고생끝에 락을 보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잊을수 없는 고난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2.8비날론련합기

씨 비날론공업의 창시자이시고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빛나는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고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 온 나라 대 경 사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폭 포 치 며 쏘 아 지 는 비 날 론 솜 을 보 시 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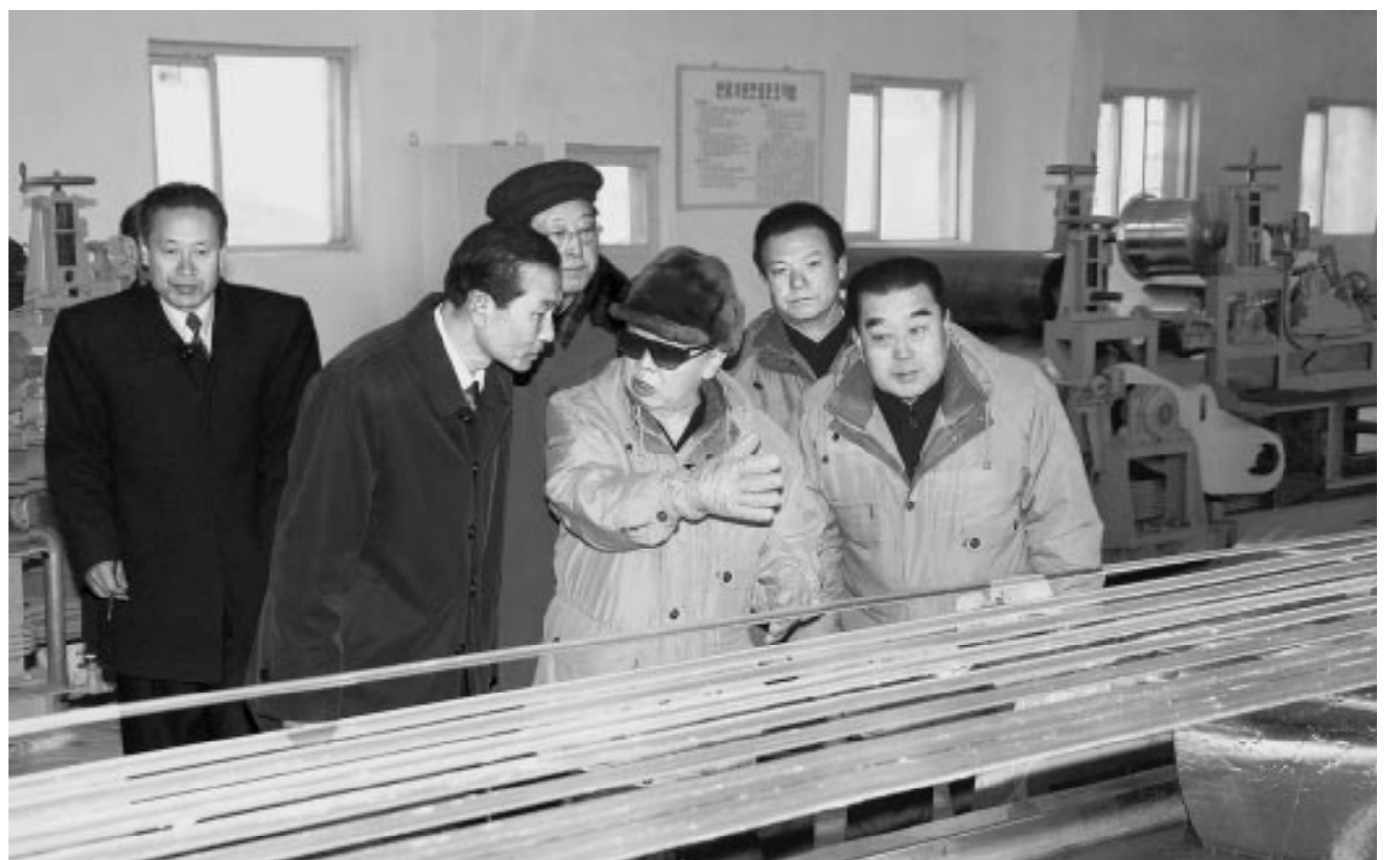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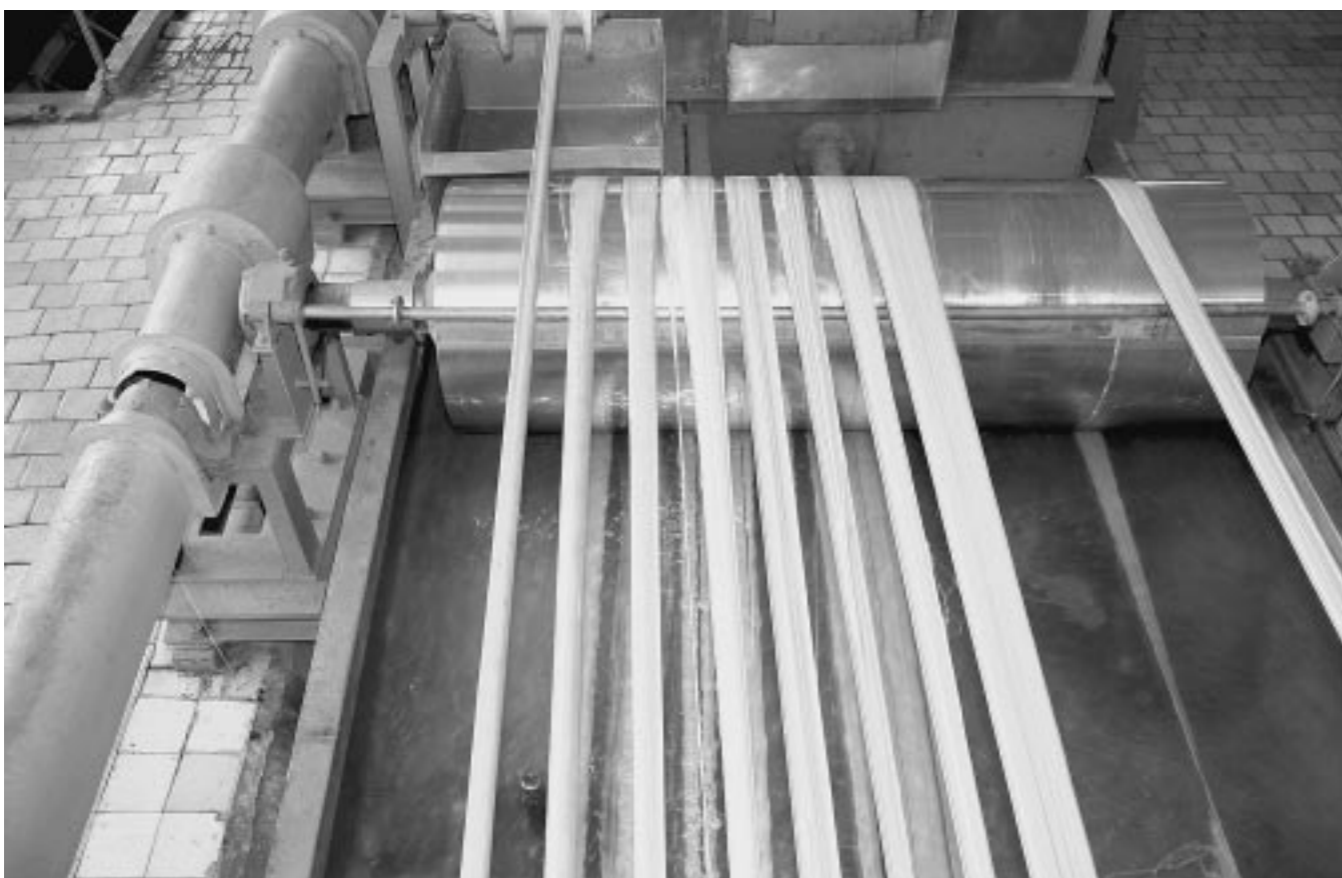
1 면 에서 계 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는 인 민 생 활 을  
획 기 적 으 로 높 이 데 대 한 당 의 구 상 을  
실 현 하 는 데 서 관 건 적 의 의 를 가 지 는 공 장 이  
라 고 하 시 면 서 비 날 론 을 비 롯 한 화 학 제 품  
들 을 대 대 적 으 로 생 산 하 데 대 한 전 투 적  
과 업 을 제 시 하 시 었 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인 민 들 에 게 더 많 은  
옷 감 을 보 내 주 기 위 해 서 는 새 로 건 설 된

비 날 론 공 정 들 을 만 부 하 로 돌 려 생 산 을 높  
은 수 준 에 서 정 상 화 하 는 것 과 함 께 카 바 이  
드 로 건 설 을 비 롯 한 능 력 확 장 공 사 를 힘 있 게  
추 진 하 여 야 한 다 고 강 조 하 시 었 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중 합 적 대 화 학 기 지 인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가 활 기 있 게 전 진  
해 야 경 공 업 을 비 롯 한 인 민 경 제 여 러 부 문  
에 더 많 은 원 료 를 대 주 어 인 민 생 활 을 급  
속 히 높 이 수 있 다 고 하 시 면 서 기 업 소 의 로  
동 계 급 이 자 기 의 사 명 감 을 깊 이 자 각 하 고

생 산 과 건 설 에 서 끊 이 없 는 양 양 을 일 으 켜  
가 리 라 는 기 대 와 확 신 을 표 명 하 시 었 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오 늘 의 거 창 한 대 진  
군 속 에 서 우 리 인 민 이 오 랜 세 월 품 고 있 던  
원 대 한 리 상 과 포 부 가 하 나 하 나 현 실 로 꽃  
펴 나 고 있 다 고 하 시 면 서 강 성 대 국 건 설 력 사  
에 서 오 늘 처 럼 앞 길 이 환 히 내 다 보 이 고 풍  
만 한 결 실 이 맺 어 지 는 때 는 없 었 다 고 말 씀  
하 시 었 다.  
김 정 일 동 지 께 서 는 혁 명 과 건 설 의 모 든

분 야 에 서 련 이 어 전 해 지 고 있 는 경 사 들 은  
모 든 것 이 좋 아 는 강 성 대 국 의 광 명 한  
미 래 를 예 고 해 주 고 있 다 고 하 시 면 서  
당 창 건 65 율 이 되 는 올 해 를 대 변 혁 의  
해 로 빛 내 임 으 르 써 강 성 대 국 건 설 에 서 결 정  
적 인 전 환 을 일 으 키 자 고 다 시 금 간 곡 히  
호 소 하 시 었 다.  
2. 8 비 날 론 련 합 기 업 소 의 전 체 당 원  
들 과 근 로 자 들 은 경 애 하 는 장 군 님 께 서  
제 시 하 신 전 투 적 과 업 을 결 사 관 철 함 으 르 써

비 날 론 을 비 롯 한 화 학 제 품 생 산 에 서 비 약  
적 인 발 진 을 이 록 할 총 성 의 맹 세 를  
다 지 었 다.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창 설 해 주 시 고 경 애 하 는  
장 군 님 께 서 보 다 높 은 단 계 에 로 발 진 시 켜  
주 신 주 체 의 비 날 론 공 업 은 결 세 위 인 들 의  
송 고 한 애 국, 애 민 의 사 랑 의 전 실 을  
천 세 만 세 길 이 전 하 며 영 원 무 궁 투 록  
번 영 할 것 이 다.  
본 사 정 지 보 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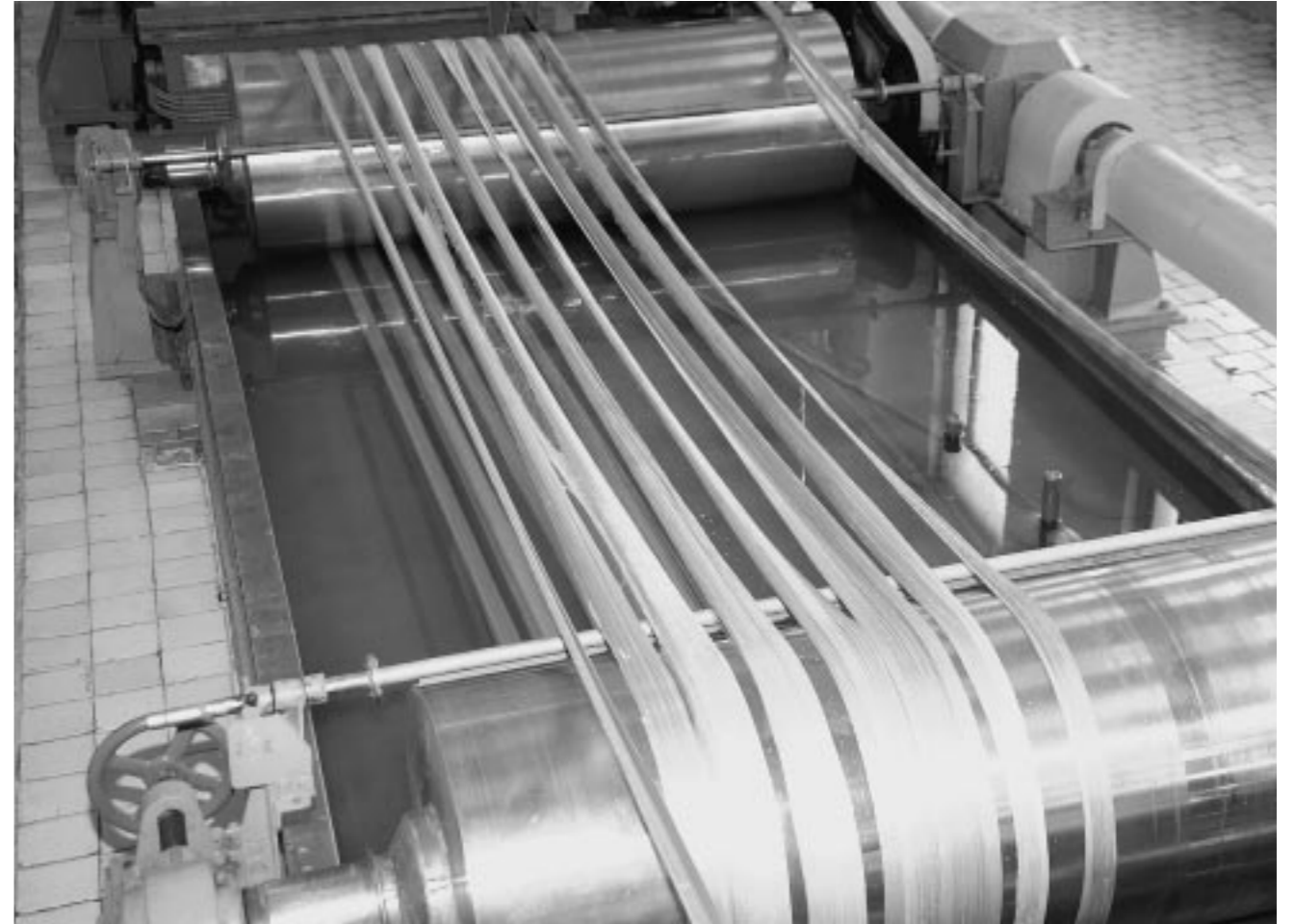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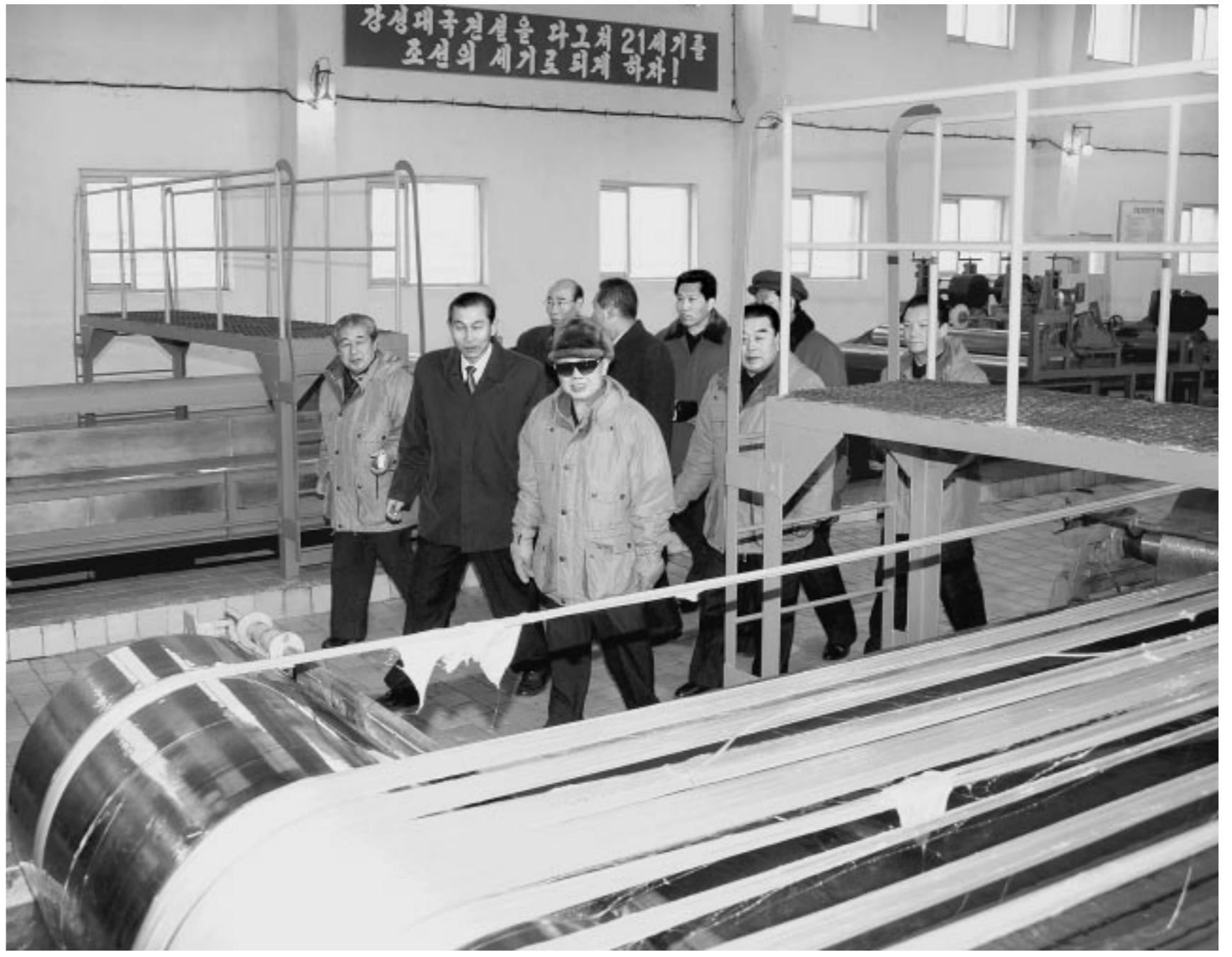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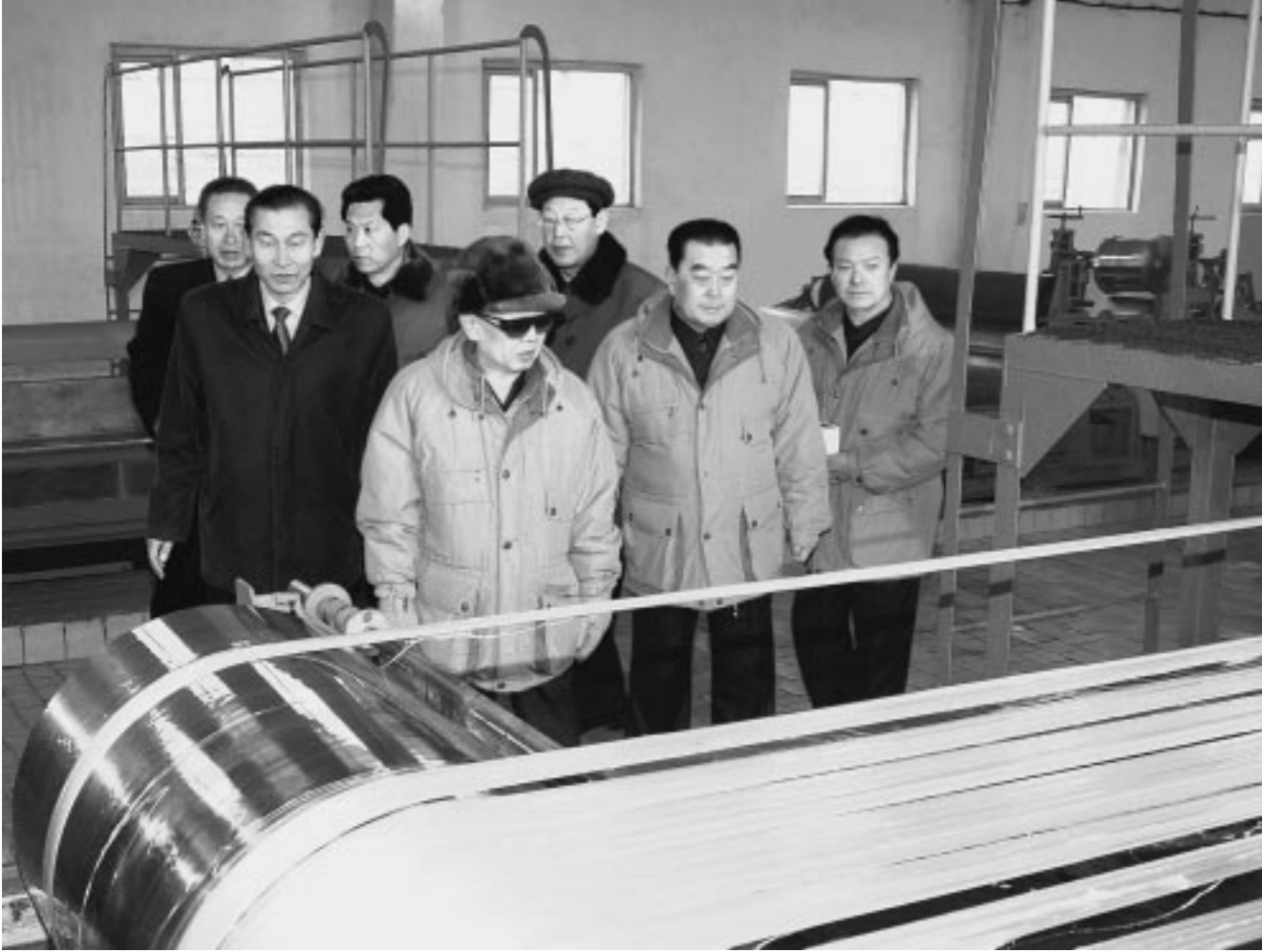
# 온 나라 대경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꼭 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시였다



# 온 나라 대 경 사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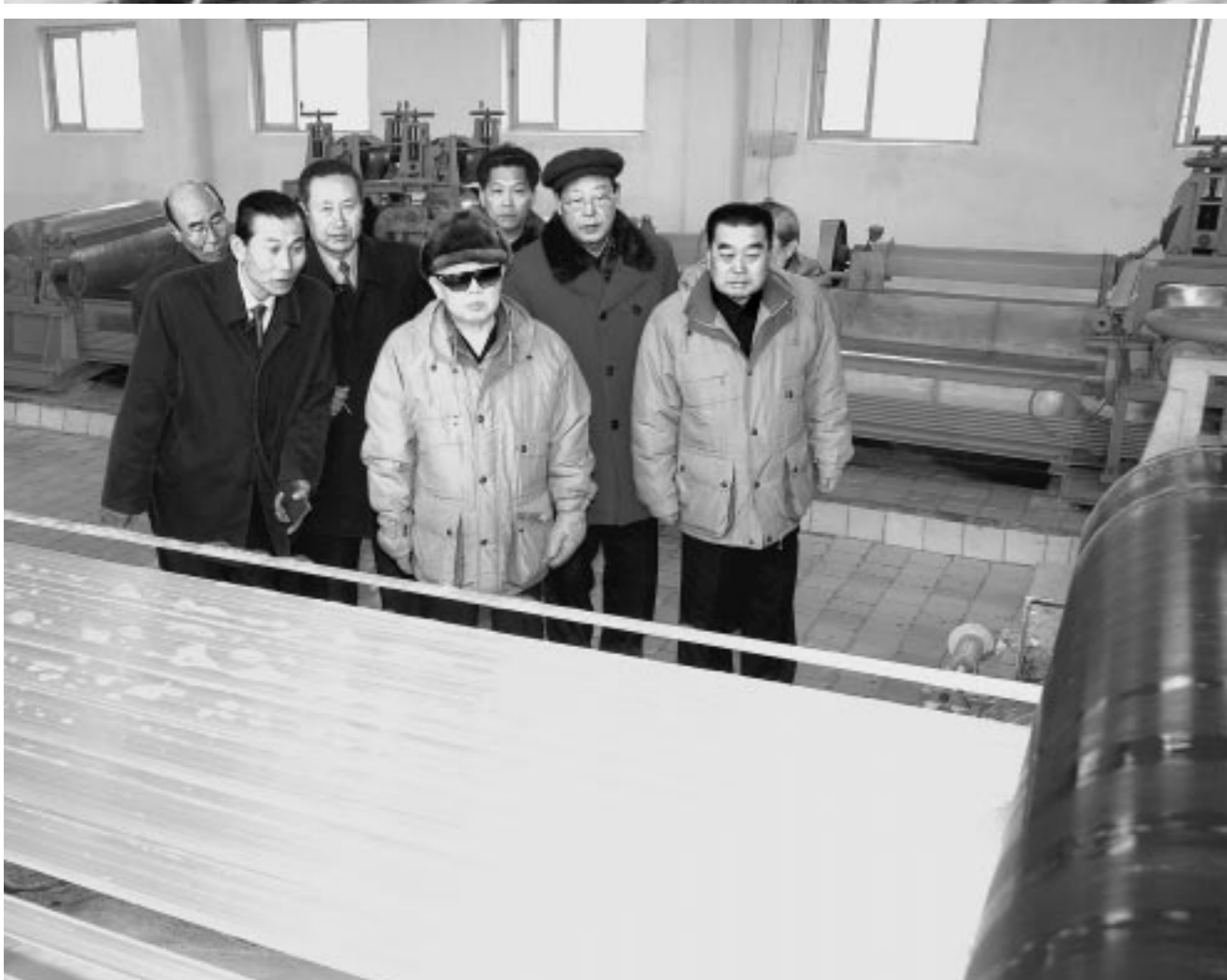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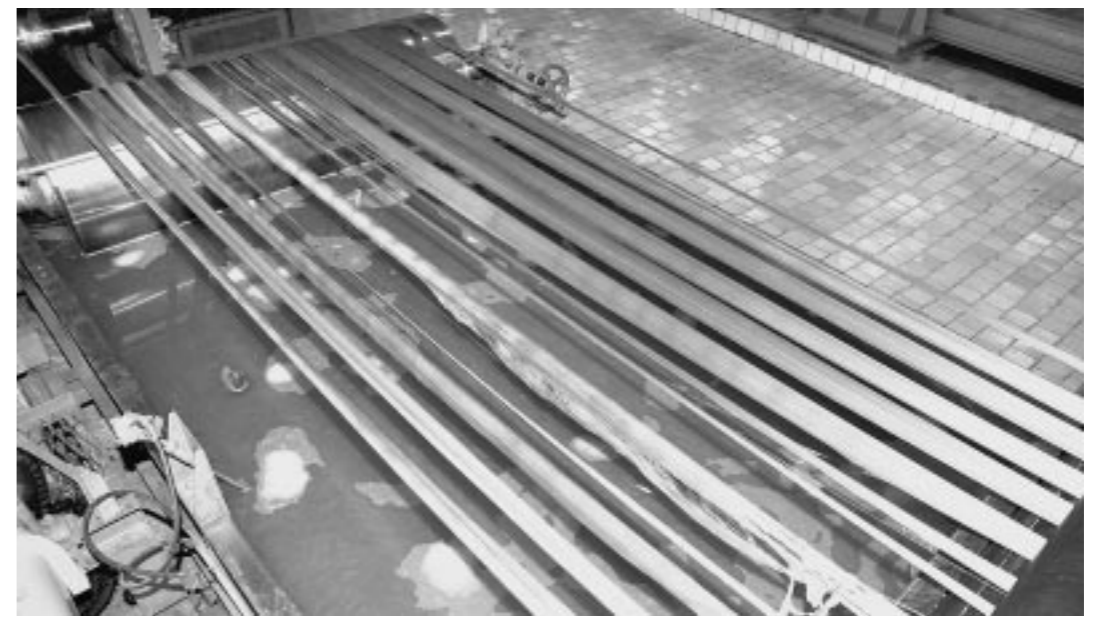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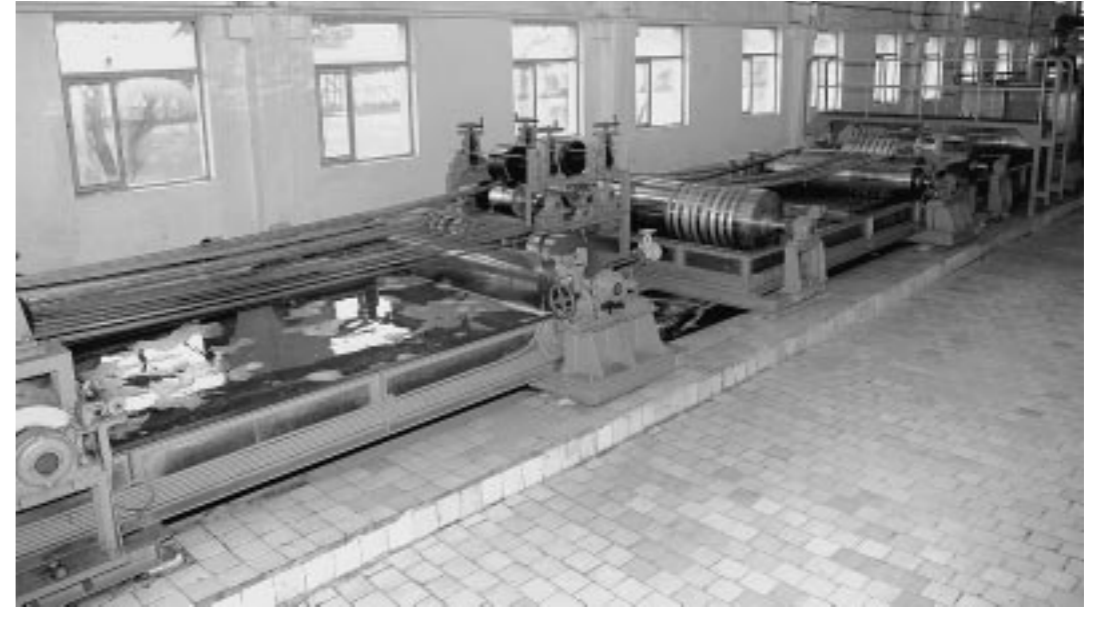
### 폭 포 치 며 쏘 아 지 는 비 날 론 솜 을 보 시 었 다



# 온 나라 대 경 사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폭 포 치 며 쏘 아 지 는 비 날 론 솜 을 보 시 었 다



# 온 나라 대 경 사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폭 포 치 며 쏘 아 지 는 비 날 론 솜 을 보 시 었 다

